

2013 문화계 결산 ④ 문화행정



올 한해 문화전당 법인화 논란으로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다. 시민단체들의 문화전당 법인 위탁 반대 집회.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전당 법인화·부실한 콘텐츠 논란

올 한 해 광주의 문화행정을 압축해 보여주는 단어는 ‘논란’과 ‘우려’이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관련해 법인화, 콘텐츠 부실 논란, 전시·공연예술감독 자질 논란 등이 이어졌다.

특히 광주문화재단의 난맥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현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컨텐츠 타워’로서 한계를 드러낸 광주문화재단을 이끌어온 현 재단 대표이사를 이사진이 재임하에 개혁의 여망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발원’의 명칭을 ‘(재)아시아 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를 결성,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전당을 특수법인에 위탁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광주시의회, 광주시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최종 법안을 조율하자는데 뜻을 모아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지난 4월 공개한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기획 프로그램 등)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나서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지역에서는 정부와 개발원에 문화전당 콘텐츠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제기됐고, 광주지역 각계 인사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도 활발했다.

문화부가 이런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내용을 대폭 보강한 콘텐츠 종합계획(안)을 지난 10월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화전당 전시·공연예술감독 자질 논란도 문화전당의 순항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례로 꼽혔다.

울초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광주문화재단의 행태는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행정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였다.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직원 채용 당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명을 비공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또 재단 사무처장이 인사청탁을 받아 관련 인사 규정을 어긴 채 총 6명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재단 사무처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문화재단은 여전히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드러냈다. 지역사회에서 광주시의 문화재단에 대한 입김배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예산집행 등 개혁을 촉구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 됐다.

특히 최근 재단 직원이 해외 출장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지역 문화계는 “문화재단의 개혁이 요원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이사회에서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광주시장에게 추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문화재단의 역할 부재와 행정 난맥상에 책임을 져야할 인사를 재임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완결태에 빠진 광주문화수도의 미래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문화단체들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문화계, 특별법 철회 투쟁... 안정적 재원확보 관심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추진 퇴행적 문화행정 반발

정부의 문화전당 법인위탁 추진은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다. 문화융성을 국정기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국책사업인 문화전당의 운영을 정부가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광주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과 관련, 단 한 차례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문화부는 지난 6월 현 ‘아시아 문화

하면 효율성을 추구해 공공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전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정부 조직이건 특수법인이건 문화부가 문화전당의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법안개정을 밀어붙여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함평 잠일미술관, 지역특성화에 교육육 보고전

함평 잠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2013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일상더하기이상’ 결과보고전을 연다.

미술관이 군과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함평 용산리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201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수업과정과 결과물들이 전시된다.

‘일상더하기이상’은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들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화

와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매년 작은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또 “300년전 마을주변이 물로 되어있었고 마을의 모양이 배의 형상을 닮아 주현(舟峴)이라 이름지어졌다”라는 마을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마을 입구에 마을의 상징을 담은 벽화를 만들기도 했다. 문의 070-8872-671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행원 크리에이티브 대표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이행원(45·사진)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가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연극 대상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수상했다.

연출가로도 활동하는 이 대표는 ‘의자는 잘못없다’, ‘학문외과’, ‘밀바닥에서’ 등 70여편의 작품을 연출했으며 연출작 ‘뽕과 삶’ ‘찬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등은 전국연극제 광주 대표로 출전했다. 또 KT나주 연수원의 교육연극, 질병관리본부 ‘신비의 명아

을 찾아라’ 전국 30개도시 순회공연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소극장 씨디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소극장협회 광주 지회장, 한국협회 광주지회 이사도 활동중이다. 광주연극상, 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59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구분	예선 지정곡(3곡중 1곡)	본선 지정곡(3곡중 1곡)
초등부1·2학년	예선 없음 (단심)	1) W. A. Mozart Sonata K.330 제3악장 2) D. Scarlatti Sonata in G major, L.127 3) J. Haydn Sonata Hob. X VI: 23 제1악장
초등부3·4학년		1) W. A. Mozart Sonata K.332 제3악장 2) J. Haydn Sonata Hob. X VI:27 제1악장 3) F. Schubert Impromptu in A♭ Major Op.90 No.4
초등부5·6학년		1) J. Haydn Sonata Hob. X VI:52 제1악장 2) L. v. Beethoven Sonata Op.22 제1악장 3) C. Weber Rondo Brillante Op.62
중등부	1) F. Chopin Etude Op.25 No.9 2) F. Chopin Etude Op.10 No.12 3) F. Mendelssohn 3Etude in B♭ minor Op.104b No.1	1) L. v. Beethoven Sonata No.2 Op.2 제1악장 2) L. v. Beethoven Sonata Op.22 제1악장 3) R. Schumann Faschingsschwank aus Wien Op.26 No.5 Finale
고등부	1) F. Chopin Etude Op.10 No.8 2) F. Chopin Etude Op.25 No.11 3) R. Schumann Paganini etude Op.3 No.1(Liszt 어님)	1) L. v. Beethoven Sonata No.3 Op.2 제4악장 2) L. v. Beethoven Sonata Op.57 제1악장 3) J. Brahms sonata No.1 제3악장(Scherzo악장판)

성악특창 :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특주) :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합주)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중창·중주 : 자유곡 1곡
합창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유의사항
 ※ 자유곡 악보 1부 지참, 필요시 제출
 ※ 단체 : 보연대 등 물품들을 개별 준비

개최요강(음악부문)
 1. 대회기간 : 2014년 4월 23일(수) ~ 6월 28일(목)
 2. 참가자격 : 국내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3. 구분(음악부문)
 1)성악특창 2)피아노 3)바이올린 4)첼로 5)플루트 6)관악특주
 7)현악특주 8)기악특주 9)중창·합창 10)중주·합주(관악·현악·기악) 11)실용음악
 4. 심사 : 본사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사위원은 신청 마감후에 위촉함.
 5. 시상
 1)개인·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2)합창·합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3)개인·단체 최고상, 합창·합주제 대상 : 소정의 장학금 지급
 6. 참가신청
 1)기간 : 2014년 4월 9일(수) ~ 4월 16일(수)
 2)방법 : 인터넷, 우편,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
 7.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월초 게재될 광주일보 사고(社告)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전체 대회요강은 3월초에 발표됩니다.

문의 :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062)220-0541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

‘굿바이 2013’ 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8~29일 송년음악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올해 마지막 주말상설공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와 ‘굿바이 2013’ 무대로 꾸며진다.

28일 오후 3시 토요일무대는 송구영신 기원 ‘송년음악회’, 유소희의 신평동류 거문고산조를 비롯, 판소리 춘향가 중 ‘남원경사’대목을 기성희의 소리로 들려준다.

이현희의 흥춤과 대금(빈종영), 아쟁(양희정), 장구(이희욱)로 이뤄진 한일삼·박종선 계보의 산조합주, 정지하의 설장고 무대에 이어 출연자 전원의 남도민요 한바탕으로 마무리한다.

29일 오후 3시 일요일무대는 퓨전음악단체 해화실내악단(사진)과 함께하는 ‘굿바이 2013’ 음악회.

공연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의 삽입곡들을 선보인다. 해금의 애절한 선율과 대금, 소금의 음



색이 어우러지는 드라마 ‘황진이’의 ‘꽃날’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의 ‘키키’,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너를

태우고’, 영화 ‘왕의 남자’의 ‘인연’을 차례로 들려준다. 무료 공연.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조덕배와 함께’ 담양 대담미술관 28일 방석음악회

담양 대담미술관이 올해도 방석음악회를 연다.

미술관은 매해 연말이면 조촐한 음악회를 열어왔다. 전시장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 공연이다.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미술관에서 열리는 4회 행사의 초대 손님은 가수 조덕배(사진)다.

그는 이번 음악회에서 ‘나의 옛날 이야기’, ‘곰에’, ‘그대 맘에 들어오면’ 등 히트곡을 선사한다.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정준기 서울대 교수의 기증도서, 강릉커피박물관의 커피를 활용한 친환경 에센스 등 후원상품도 전달한다.

대담미술관은 자연과 예술, 사람 모두가 소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미술관, 창의체험 교육관, 체험관, 체험민박, 뮤지엄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티켓 가격 1만원. 전화(061-381-0081~2), 홈페이지(daedam.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4왕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16석 룸원비)

- Steak 이용요금(별도판에)
- 1. 포크 Steak 8,000원
- 2. 락스비 Steak 9,000원
- 3. 비프 Steak 10,000원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홀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olo polo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